숲속 선사들이 서울 강남에 뜬다

참불선원, 4월 19~26일 '선승, 육조단경 대법회'

대원 · 보광 · 혜국 · 일오 스님 등 대표 선사들, 참선 정수 설파
집중수행도 병행… 매일 실참



육조단경 법회에 참여하는 선사들. 왼쪽부터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내소사 선덕 일오 스님, 대흥사 유나 정찬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속세에서 떨어진 채 깨달음을 찾아 정진하는 선사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심 서울 강남에 뜬다.

서울 참불선원(선원장 각산)과 BBS 불교방송은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8일간 간화선 특별 집중수행과 함께 '선승, 육조단경 대법회'를 참불선원서 개최한다. 선원장 각산 스님은 "평생을 은둔 수행한 한국불교 대표적 선사들이 참선의 정수를 설파한다"고 밝혔다.

법회에는 세간에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이 20여년 만에 대중법문에 나선다. 아울러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내소사 선덕 일오 스님, 대흥사 유나 정찬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이 차례로 간화선맥의 근본 텍스트인 〈육조단경〉을 주제로 법문한다. 매 법회에는 약 600명의 불자들이 몰릴 것으로 참불선원은 내다보고 있다.

참불선원은 "보광 스님은 세상을 내려놓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독야청청의 고매한 은둔의 삶을 사는 수행자들의 사표로서 그동안 대중에게 거의 법문을 하지 않았다. 또 일오 스님은 초기불교와 선어록을 꿰뚫은 선사로 알려져 있다. 속세를 떠나 제자들과 오로지 수행에 전념해온 선지식들이 한자리에서 야단법석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이번 대법회는 주목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조단경〉은 육조 혜능선사(638~713)의 어록이자 선종의 대표적 경전이다. 자신이 육조의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도정(道程)과 문인들을 위한 갖가지 설법을 담고 있다. 선불교 시조격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즉,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육조단경 법회에 대해 "바쁜 현대인에게 경전을 배우지 않고, 불교지식이 없어도 선승들의 법문만 듣고도 삶을 전환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불교의 비밀과 깨달음을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야단법석 자리가 바로 육조단경을 강설하는 법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육조단경은 닦지 않고도 마음의 고통과 업의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선(禪)의 특징적 면모를 갖고 있는 참선 지침서다. 점차적 수행법이나 자세와 호흡 등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치유명상, 요가명상, 단전호흡, 마음수련 등의 일반명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육조단경 법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7박8일 집중수행비는 별도다. 집중수행 참가 인원은 70명으로 한정되며, 매일 〈육조단경〉 강설과 8시간 좌선실참을 하며 선문답으로 수행지도 한다. 1577-36%

조계종, 4.3영령 추모 영산재 연다

70주년 맞아 광화문서
본사 추모 현수막 게재
당일 사찰별 축원 진행

조계종이 제주 4.3항쟁 70주년을 맞아 희생 영령들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행사를 전개한다.

조계종은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4월 3일 광화문 광장서 영산재를 봉행한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이 참석하며, 시민분향소도 설치해 희생영가들을 기릴 예정이다.

제주도에서 4월 3일 열리는 공식 추념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직접 참여한다. 이는 지난 1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범국민위원회 측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또한 조계종은 4.3항쟁 인권평화주간을 맞아 각 교구본사에게 희생 영령을 추모하는 현수막 게재와 기념일 당일 희생자 추모법회를 열 것을 권고했다. 현재 추모 현수막 시안과 상단 축원문 등이 각 본사로 전달된 상황이다. 축원문에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희생된 영가들의 왕생극락과 해원상생의 길을 가도록 노력할 것을 기원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4.3사태에 불교의 피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특히 우리 스님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 참혹한 실상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고, 더 많은 분들이 추모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불교계 #미투운동' 3월 29일 토론회

성불연대, 우리함께빌딩 기룬서 '성폭력 사례 분석' 등

강선미 소장 '젠더정치학'
이채은 등 청년불자도 발제

불교여성단체들이 '#미투 운동'의 배경과 의미를 되짚고, 불교계 성폭력 사례를 통해 그 특징과 예방책을 살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성평등불교연대는 3월 29일 오후 3시 '불교계 #미투운동을 말하다' 주제 토론회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 기룬에서 연다.

토론회는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의 사회로 강선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장이 '젠더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미투운동의 흐름',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이 '불교계 성폭력의 사례를 통한 특성 분석', 옥복연 종교와젠더 연구소장이 '성폭력에 대한 경전적 해석 및 대안 모색',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가 '젊은 불자의 눈으로 본 불교계 성폭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주최 측은 "지난 30여년간의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가져가고자 했던 과정이었다. #미투는 무관심하게 방치, 조장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 용기 있는 폭로, 말하기다. 성폭력은 여전히 조직과 집단 내에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은 폭로한 후에도 비난 등의 사회적 시선을 견뎌내야 한다. 대상화시키고 다른 사안으로 몰고 가거나 다른 의도를 의심 받기도 한다"며 "이것이 공동체의 성찰과 자성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젠더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더 높은 수준의 성평등으로 이어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된 #미투가 다른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고 종교계 역시 피해자의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젠더 권력을 비롯한 일상적 권력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성폭력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종교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절대적 권위, 신앙을 의심받고 배제되는 종교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에 성불연대는 "'불교계, #미투운동을 말하다' 토론회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꺼내는 것조차 낯선 불교계에서 최근 #미투운동의 배경과 의미를 공유하고 불교계 성폭력의 사례를 통한 성폭력의 특징과 예방책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경전에서 나타난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침묵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말하기'의 용기를 주겠다는 의미서 시작됐다. 또한 성폭력을 묵과해온 것에 대한 성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자리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문화재 재난매뉴얼 마련 의무화된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지정문화재에만 적용됐던 재난 · 도난 대응 매뉴얼 제작 의무화가 등록문화재까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은 화재 · 재난 대응 매뉴얼, 동산문화재는 도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국보 · 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제외한 문화재 중 건설 · 제작 · 형성된 후 50년이 지났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근대문화유산'으로도 알려진 등록문화재에는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이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문화재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학생단체와 'With You 선언'

중앙도서관서… 관련 리플렛 제작 · 1달간 집중 신고 운영

신임 동국대 인권센터장엔 안석모 前인권위 사무총장



동국대 인권센터는 3월 19일 오전 11시 중앙도서관에서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등 학생단체들과 함께 '위드유(WithYou) 선언식'을 개최했다.

권력형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에 동국대도 이에 동참하는 '위드유(WithYou) 운동'을 전개한다.

동국대 인권센터는 3월 19일 오전 11시 중앙도서관에서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등 학생단체들과 함께 '위드유(WithYou)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성희롱 ·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용기 있는 이들에 대한 지지를 보낸다"며 "동국대는 피해자의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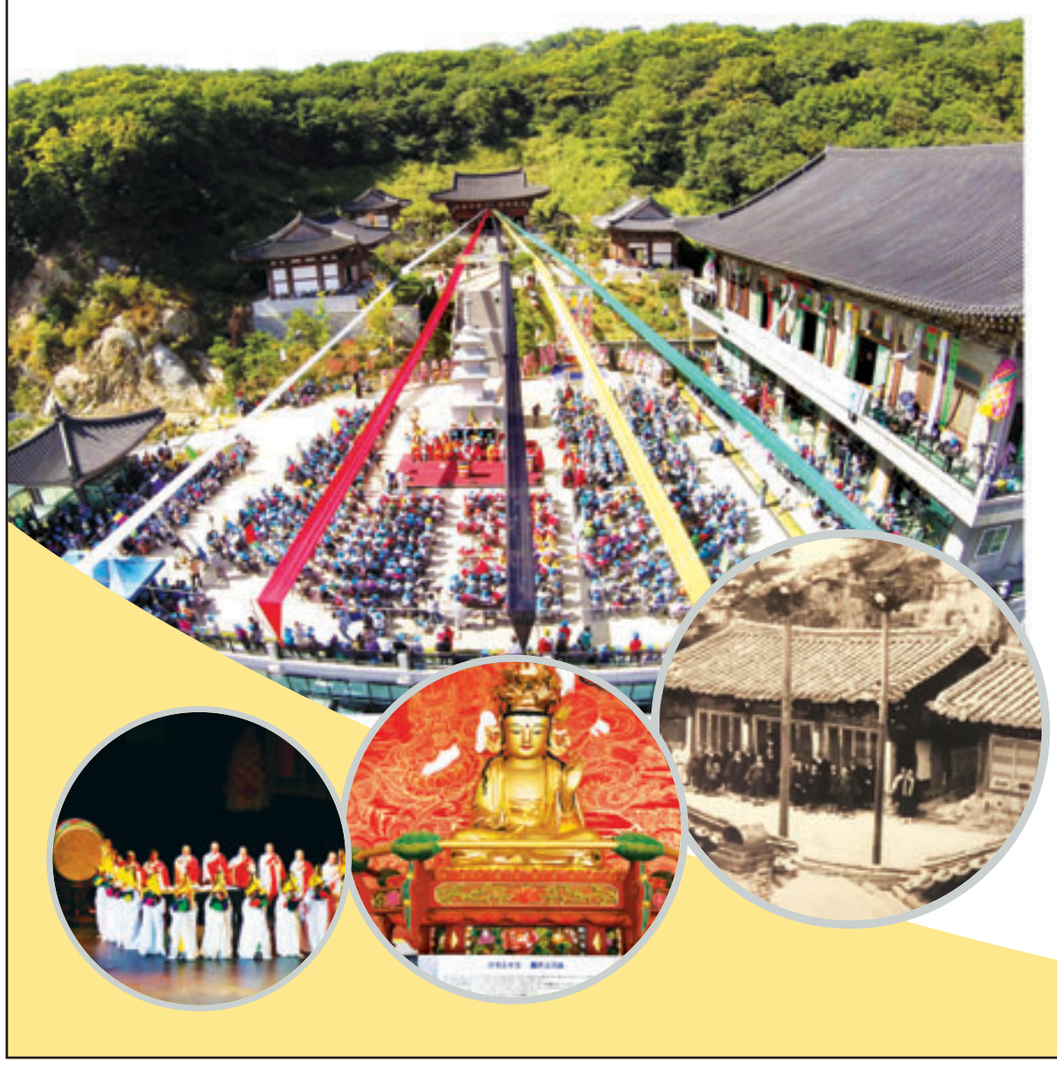
동국대 인권센터는 위드유 운동을 구체화 하기 위해 'WithYou' 팔찌 및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며, 학생 중심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간 성희롱 · 성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인권센터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등을 통한 다채널 신고 및 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동국대는 학내 인권센터의 신임 수장에 안석모 前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안 前사무총장은 지난 3월 1일 동국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바 있다.

안 신임 동국대 인권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 학생 모두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최근 '미투(Me Too)운동'에 나선 대학생들의 용기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표하는 '위드유(With You)운동' 또한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련사 창건 119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양주 청련사의 역사와 문화」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천년고찰 청련사에서는 문헌고증을 통해 청련사의 지난 역사를 정립하고 현재와 미래의 종교적 역할을 제시함과 더불어 1200여년 동안 유지, 전승되어온 유형 · 무형 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천년고찰 청련사의 역사적 문화적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2018년 4월 14일(토) 14시

장 소 : 양주 천년고찰 청련사 대적광전

주 최 : 천년고찰 청련사

후 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태고총림 선암사, 양주시청, 장흥면사무소, BTN불교TV, BBS불교방송, 한국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 푸른연꽃마을

문 의 : ☎ 031)836-2439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청련사)

세미나 식순

시 간	내 용
〈입 재 식〉	▸사 회 (철오스님)
14:00 ~ 14:30	▸경과보고 (효능스님)
	▸인사말씀 (천년고찰 청련사 총무 상진스님)
	▸축 사 (내 · 외빈)
	▸축 가 (심향합창단 - 공심공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주제발표〉	
14:30 ~ 14:50	【제1주제】"청련사의 역사적 변천과 위상"
	■발 표 : 이종수 (순천대학교)
14:50 ~ 15:10	【제2주제】"양주 청련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
	■발 표 : 유근자 (동국대학교)
15:10 ~ 15:30	휴식
15:30 ~ 15:50	【제3주제】"조선 말기 청련사와 왕실발원 불화"
	■발 표 :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15:50 ~ 16:10	【제4주제】"청련사 어산상진 계보와 성음의 특징"
	■발 표 : 윤소희 (동국대학교)
16:10 ~ 16:30	【제5주제】"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발 표 :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전체토론〉	
16:30 ~ 17:30	▸좌 장 : 최종남 (중앙승가대학교)
	▸토론자 : 김종진 (동국대학교), 최엽 (동국대학교)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손인애 (서울대학교)